

서정원의 외로운 싸움, 구단이 감사야 하는 이유

(수원 감독)

제일기획 인수후 투자 메달렸던 5년 동력 고갈된 서정원 감독 사퇴 촉발 복귀후 2승했지만 ACL 등 가시밭길 따뜻한 응원·신뢰 회복 구단의 숙제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인재사랑은 유명하다. "기업은 곧 사람"이라는 말에 많은 게 녹아 있다. 그는 인생의 80%를 인재를 모으고 육성하는데 썼다고 했다. 그런 삼성의 인재경영은 3대에 걸쳐 이어지고 있다. 지난 달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꺼낸 대화의 주제는 인재였다. 그는 "평양역 건너편에 새로 지은 건물에 '과학중심 인재중심'이라고 써져 있었다"면서 "삼성 기본경영 철학이 '기술중심 인재중심'이다"고 소개했다. 창업주처럼 그도 인재경영에 대한 철학이 확고하다.

기업문화가 그렇다면 그 기업이 운영하는 스포츠단의 분위기도 얼추 비슷해진다. 삼성은 한 때 국내 스포츠를 먹여 살렸다. '삼성이 하면 다르다'는 말은 통 큰 투자의 다른 표현이었다. 아울러 선수와 지도자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데도 신경을 많이 썼다.

1995년 12월 창단한 프로축구 수원 삼성도 축구인을 대우했다. 1994미국월드컵 대표팀 감독 출신의 김호를 초대 사령탑으로 영입한 수원은 K리그 참가 첫 해(1996년)부터 챔피언결정전 및 FA컵 준우



'인재 경영'이라는 모기업의 기본 철학 아래서 K리그를 선도했던 수원 삼성이 흔들리고 있다. 사람을 중시하는 풍토가 사라지면서 구단 안팎으로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중도 사퇴 이후 돌연 컴백했던 서정원 감독의 웃지 못할 해프닝은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스포츠동아DB

승을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창단 3년 만에 K리그 정상에 올랐다. 구단의 지원과 선수들의 열정, 그리고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단박에 명문구단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K리그 우승은 통산 4번이다.

구단의 4대 사령탑 서정원 감독은 2013시즌부터 지휘봉을 잡았다. 이듬해 큰 변화가 있었다. 제일기획이 축구단을 인수했다. 반신반의하는 여론을 향해 구단은 다양한 마케팅으로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지만 말뿐이었다.

지난 5년간은 위축되는 투자에 애간장만 탔던 시기였다.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서 감독은 나름 성과를 냈다. K리그 준우승 2번(2014, 2015년)과 FA컵 우승(2016년)으로 체면치레는 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수원은 그저 그런 팀이 되고 있다. 팀 분위기도 예전만 못하다. 독주하는 전북 현대를 견제할 힘을 잃은 지도자도 오래다.

올 시즌 전망도 밝지 않았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일은 8월 말 서 감독의 돌연 사퇴였다. 한창 시즌 중에, 그것도 전북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을 코앞에 둔 시점에 나온 갑작스런 일어서서 말이 많았다.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와도 넘은 팬심, 그리고 구단과의 불편한 관계 등 소문은 꼬리를 물었다. 어쨌든 구단 내부에 문제가 많았던 건 사실이 다. 구단의 소중한 자산인 감독이 버릴 힘이 없다는 건 팀도 굉장하다는 의미다.

그 후 한 달 반이 흐른 이달 중순, 서 감독은 깜짝 복귀했다. K리그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쑥스러운 사퇴 반복이다. 전격적으로 그가 돌아온 데는 '책임감'이 컸다. 시즌 막바지에 벌어질 중요한 경기를 외면

할 수 없었다. 감독이면서 선수 시절 수원의 전성기를 이끈 레전드였기에 체면을 구겨가면서도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 구단의 복귀 요청이 있었다지만 이미 레전드의 자존심에 심한 상처가 난 뒤였다.

다행히 서 감독 복귀 이후 팀은 잘 나간다. 제주와 FA컵 8강전은 물론이고 포항과 K리그 33라운드에서도 이겼다. 선수들은 사력을 다했고, 팬들은 더 큰 소리로 응원했다. 서 감독의 어깨는 다시 무거워졌다. 수원은 상위 스플릿에 올라 내년 AFC 챔피언스리그 출전 티켓을 다룬다. 24일에는 올해 AFC 챔피언스리그 가시마 에블러스(일본)와 4강 2차전(1차전 2-3 패)을 치른다. FA컵에서는 울산과 4강전을 갖는다.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정도로 중압감이 클 것이다. 남은 경기에서 최상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구단이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한다.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해줄지 바란다.

시즌이 끝난 뒤 구단이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서 감독의 사퇴 파동을 불러온 문제점이 무엇인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유아무야 넘겨서 곤란하다. 그게 묻히면 수원의 미래도 함께 묻히는 것이다. 특히 신뢰의 문제를 점검했으면 한다. 구단은 선수단을, 선수단은 구단을 믿고 있는 지가 궁금하다. 이병철 창업주의 말을 빌리면 "구단은 곧 사람"이다. 수원 삼성이 인재를 중시하고 있는 지 묻고 싶다.

전문기자 choing2@donga.com·체육학 박사

강등권 사투 직면한 서울

10경기서 '3무 7패' 패배의식을 지워라

믿지 못하는 플레이·실수 반복 안돼



K리그1(1부 리그) FC서울은 역대 가장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올 시즌 정규리그 33라운드까지 마무리된 가운데 서울은 팀당 5경기씩 치를 스플릿 라운드 그룹B(7~12

위)로 추락했다.

우승경쟁은 일찌감치 실패했고 다음 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출전권 경쟁에서도 밀렸다. 가장 두려운 강등권 사투에 직면했다. 이윤용 감독 대행이 떠난 자리를 채운 최용수 신임 감독이 지휘한 20일 제주 유나이티드 원정에서 0-1로 패한 서울은 8승11무14패(승점 35)로 9위에 랭크됐다.

2012년 도입된 스플릿 라운드에서 서울이 그룹B로 내려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제는 '절대 1강' 전북 현대만이 하위 리그를 경험하지 않은 팀으로 남게 됐다. K리그2(2부 리그)로 자동 강등되는 순위인 12위에 랭크된 인천 유나이티드(승점 30)와의 간극이 멀지 않다. 두 경기 결과로 꼴찌까지 추락할 수도 있다.

부진의 원인은 다양하겠으나 지독한 패배의식을 털어내지 못한 이유가 크다. 벌써 10경기 무승(3무 7패)이다. 8월 15일 수원 삼성을 2-1로 꺾은 뒤 승수를 쌓지 못했다.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선수들은 스스로와 서로를 믿지 못한다. 볼 처리를 마르고, 슈트를 아낀다. 무게 중심을 내리면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곤 한다. 실수도 끊임없이 반복한다. 제주 원정에서 허용한 실점 장면은 서울이 얼마나 '안 풀리는 집안'인지 증명한 순간이었다.

당연히 내부 분위기도 엉망이다. 흔들리는 선수단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일부 베테랑들은 팀이 패배한 날, 개인적인 행사에 참여해 논란을 일으켰다. 출전명단에서 제외된 선수들이 휴식을 취하는 건 납득할 수 있으나 공개적인 자리에 나선 모습은 아쉽다.

당연히 타 팀도 더 이상 서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 때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원정 팀의 무덤'으로 포장될 정도로 상대에게는 큰 위협을 줬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아니다. 서울이라는 가장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팀 성적이 따라 홈 관중도 꾸준히 하락했다.

한 현장 지도자는 "한 번 흐름이 꺾이면 반전이 쉽지 않다. 이미지가 생명인 기업 구단은 강등을 더욱 두려워한다. 부산 아이파크도 한참 K리그2에서 헤매고 있다. 서울도 안심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나는 최고가 되고싶다" 욕심 많고 꿈도 큰 황희찬

아버지 유니폼 부탁에 호뭇한 미소 휴가때도 축구 아카데미 찾는 열정 퇴근후엔 집 주차장에서 개인훈련

한국축구대표팀의 주축 공격수 황희찬(22·함부르크)은 지난 16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파나마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아버지로부터 경기 때 입을 유니폼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는 경기 후 관중석으로 가서 부친에게 자신의 유니폼을 전달했다.

황희찬은 "아버지께서 유니폼을 달라고 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동안은 경기 후에 유니폼을 팬들에게 드렸다. 아마 아버지께서 지인들에게 유니폼을 얻어 달라는 부탁을 받으신 것 같다"고 말했다.

올 여름 황희찬은 엄청나게 바빴다. 지난시즌을 마치자마자 2018 러시아월드컵 대표팀에 출전했고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소속팀 경기, 그리고 A매치에 나섰다. 어느 덧 대표팀 단골 멤버가 됐고 인지도도 올라갔다. 그는 "이제야 아버지께서 주변 분들로부터 아들에 대한 부탁을 받는 선수가 됐는가 보다"라며 웃었다.

황희찬은 욕심이 많은 선수다.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 주축 공격수로 자리 잡았지만, 아직 이루고 싶은 꿈이 많다. 휴가 때는 축구 아카데미를 찾기도 하고 팀 훈련이 끝나고 퇴근 한 뒤에는 집 주차장에서 개인훈련을 할 정도다. 그는 "지금 힘들기는 하지만, 경기에 나서는 것 자체가 고맙고 즐거운 일이 아닌가. 나는 진짜 축구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 한국에서 손꼽히는 선수가 되고 싶다"며 말했다.

한편 황희찬은 21일(한국시간) '코리아 Derby'로 펼쳐진 2018~2019 독일 분데스리가2 보훔과의 경기에 선발 출전해 70분을 뛰었다. 함부르크와 보훔은 득점없이 0-0으로 비겼다. 경기가 끝난 뒤에는 이청용(30·보훔)과 서로의 유니폼을 들고 사진을 찍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려 눈길을 끌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함부르크 황희찬(왼쪽)과 보훔 이청용이 21일(한국시간) 독일 분데스리가2에서 코리아 Derby를 마친 뒤 유니폼을 교환하며 활짝 웃고 있다. 사진출처 | 황희찬 인스타그램

비위 혐의로 직무정지 강원 조태룡대표 사퇴

비위 혐의로 구설에 오른 강원FC 조태룡(53) 대표이사가 결국 사임했다.



조태룡 강원FC 대표

강원은 "조 대표이사가 21일 구단에 사퇴 의사를 밝혀왔다. 조 대표는 직책인 절차에 따라 31일 물러날 예정이다"라고 22일 공식 발표했다.

조 대표는 구단을 통해 "지난 2년 반 동안 강원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 달려왔습니다. 저를 둘러싼 모든 논란의 진실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밝혀질 것을 믿고, 사랑하던 강원과 함께했던 도전을 여기서 멈추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자신을 둘러싼 비위 혐의로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7차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게 2년간 축구관련 직무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구단 대표이사로서 지위를 남용해 축구단을 자신의 사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는데 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연맹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 대표는 구단으로 귀속돼야 할 이익이 본인 및 본인의 회사인 엠투에이치로 흘러가는 구조를 형성하고 자신이나 지인들의 이익을 위해 구단에 손해가 되는 의사결정을 했다. 또한 구단 직원들을 자신의 사적인 업무에 동원했고, 스폰서가 구단에 지급한 항공권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 같은 내용은 강원도가 실시한 강원 구단 감사에서도 지적됐다.

프로야구계에서 소문난 마케팅 전문가였던 조 대표는 프로축구에 뛰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불명예스럽게 떠나게 됐다. 강원 대표에 취임하며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진출과 관중 동원 등 마케팅 활성화를 목표로 삼았지만 모두 달성하지 못했다.

최용석 기자 gylong@donga.com